

##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(제62문-제64문) : 선행론(Doctrine of Good Works)

최민호 목사 (피스메이커교회)

### 1. 선행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전제 ⇨ 칭의론

참된 칭의론의 가치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나타낸다.

② 칭의가 나의 행위(공로)에 달려 있지 않기에 구원에 대한 불안이 없다.

### 2. 중세 로마교회의 칭의론

토마스 아퀴나스 (가톨릭 신학을 세운 학자) 이후 더욱 정교하게 행위가 강조됨

↳ 하나님의 은혜 + 인간의 공로(행위)의 협력을 통한 구원론 (⇨ 은혜와 행위의 중도의 길 via media)

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하여 선을 행하게 만들어서 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.

(신인협력적 구원론 ⇨ 하나님의 은혜 + 인간의 노력(공로) = 100% 구원)

② 주입된 의(infused righteousness) ⇨ 인간 안에 의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됨

### 3. 개혁파의 칭의론의 특징

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(merit,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)로만 구원을 얻는다.

⇨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께서 징계를

받으므로, 하나님의 공의(righteousness)를 만족(satisfaction)시키시고, 댓가를 지불(payment) 하심.

②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(righteousness)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?

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로 전가(imputation)된다. ⇨ sola fide, sola gratia

③ 구원에 있어 인간의 행위(공로, 선행)는 전혀 가치가 없다.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,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.

### 4. 그렇다면, 구원받은 신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?, 신자의 행위는 모두 무가치한가?

⇨ 칼빈의 이중칭의 (double justification, Inst. III, 17:8-10)

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(justification by faith)는 죄인이 죄책(guilty)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로 전가되어 의롭다고 인정된다. (죄의 용서와 전가)

② 죄사함을 받은 신자의 선행(good works)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된다. (⇨ 신자의 행위의 의)

### 5. 신자의 행위의 의(righteousness of works in believers)

①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첫째,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하심으로 용납받고, 둘째,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믿음의 신자는 그 행위까지도 의로움으로 용납받는다. (이중용납 ⇨ 믿음, 행위)

②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행위만을 의로 용납하시는데, 이는 구원받은 이후의 것이므로 구원과 무관하다. (신자의 행위의 의는 상급이 있으나 결코 공로가 되지 못한다)

③ 신자의 선행을 의로 용납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지, 신자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. (⇨ 행위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열매이다)

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,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며, 신자에게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시고, 그 선행을 신자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상까지 주신다.

### 6. 신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단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.

① 신자가 율법적 의를 포기하는 것은 율법적 의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신자 자체가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.

② 그럼에도 불구하고, 계명(율법, 가르침)을 부단히 지켜야 하는 것은 율법에는 약속이 남아 있다.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에 따른 상(보상)을 주신다.